# 전북대, 국내 동물의약품 수출 '컨트롤타워'

## 농림부 '수출연구사업단 기획지원 후속과제' 선정… 연구비 지원 받아 관련 분야 연구 · 전문인력 양성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세계 육류수요 증가와 반려동물 시장 확대 등으로 2007년 이후 연평균 7.2%가 성장하고 있고 세계 시장 규모도 33조 원에 이르는 등 유망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축산업 및 공중보건과 관련된 기간산업에 해당되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육성이 요구되지만 내수시장은 세계의 3%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이러한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17년도 수출연구사업단 기획지원 후속과제에 선정돼서다.

이 사업 선정에 따라 전북대는 올해부터 4년 3개월 동안 정부와 정읍시, 기업 등에서 32억8천3백만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아 국내 동물용 의약품 해외 수출 확대 전략을 세우고 관련 분야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 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선종근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중심으로 동물용의약품 수출연구사업단(가칭)을 구성해 2021년까지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 고도화 및 축산업 생산과 전후방 산업의 선진화를 주도한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연구자와 생산자, 수출업체 등의 컨소시엄 연구팀을 만들어 현장수요 발굴 및 해결 방안, 시장 조사 등의 연구를 실시하고, 수출 현지 시장조사와 현장에로 수요 발굴 등 현장 중심의 연구도 진행한다.

또한 연구개발 결과가 국내 동물용 의약품 수출까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수출 사업 모델을 구축, 2021년까지 연간 80억원의 수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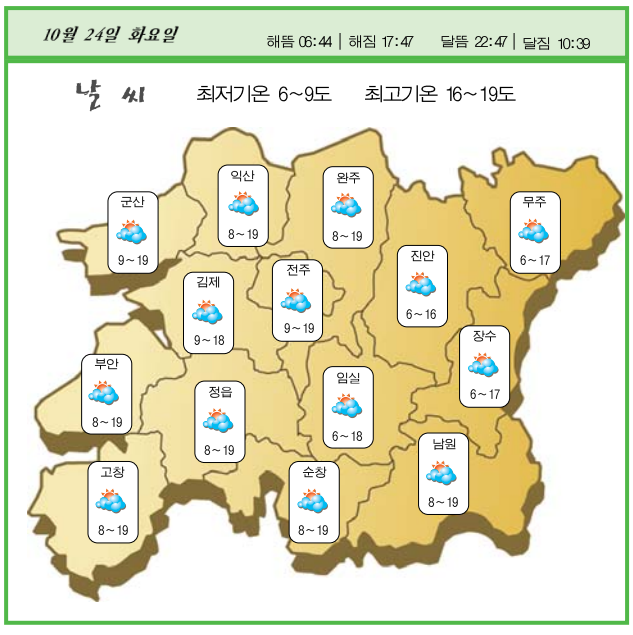
특히 사업단은 최근 정읍에 개소한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를 비롯해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 등 전북대가 보유한 세계적 연구기관들과 긴밀히 연계할 계획이어서 국내 동물용 의약품 수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정읍시와도 긴밀히 협력해 정읍의 집적화된 국가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고 동물의약품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등 정읍 동물용의약품특화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선 단장은 "동물의약품의 전체 수출과정 즉, 생산·가공·유통·검역·수출에 걸쳐 있는 현장애로와 장애요인을 발굴·해결하고 백신과 바이오제품 등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통해 종합적인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기간에 총 2백억원 수출을, 그리고 2021년에는 연간 80억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대성황**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5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마무리된 가운데, 23일 열린 폐막식에서는 IFFE 우수상품시상식이 진행됐다.




## 오승원 교수,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 수상

오승원 교수(목재응용과학과)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가 수여하는 2017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마르퀴즈 후즈 후 2018년 판에 등재됐다.

오승원 교수는 목재가공 이용분야 연구를 통해 국내외 학술지에 100여 편의 연구 성과를 발표한 것을 비롯해 목재와 옻칠 관련 특허 8건, 실용신안 및 디자인 10건 등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오 교수는 마르퀴즈 후즈 후가 선정한 2017년 세계 상위 3% 연구자로 선정됐다.

한편 오 교수는 2016년도에도 마르퀴즈 후즈 후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된바 있다.

/정해은기자

#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정책 완성도 높인다

## 시, 체계적인 아동 · 청소년 정책 수립 위한 아동 · 청소년 정책TF팀 워크숍 진행

어린이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전주시가 아동·청소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전주시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전남 순천시 일원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아동·청소년 정책TF팀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부서 간 업무공유 및 정책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아동·청소년 정책 TF팀에 참여한 10개부서, 18개 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동권리 감수성 향상 교육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 환경 조성에 대한 전문가 강의 등이 진행됐다.

또한, 국내 아동관련 우수사례로 꼽히는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과 기적의 놀이터를 방문해 우수사례를 학습하는 벤치마킹 등도 진행됐다.

이에 앞서, 시는 민선6기 공약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아동의 권리 보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규정인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이 권리의 주체자로서 존중받고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따뜻한 아침도시락을 배달하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과 도서지원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지혜의 반찬',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등의 아동을 위한 사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 6월 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정책TF팀이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방향과 사업들이 앞으로 '아이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아동친화도시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전북교육연수원, 쉼 · 사색 · 회복 연수한마당 성료

전북교육연수원(원장 김학산)의 쉼·사색·회복을 위한 연수한마당이 지난 21일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올해로 4번 째 진행된 연수한마당은 다양한 주제의 참여형 연수를 통해 새로운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인문학적 성찰을 통한 교직원으로서의 자존감과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연수한마당에는 유·초·중등 교원, 교육전문직원과 일반직공무원 6백50여명이 참여하였다.

연수한마당 첫 공통 강연자인 김정택 SBS예술단장은 '열정과 창의력 그리고 절실함'을 주제로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와 함께 쎄르파의 리더십, 절실함, 실력은 Up 자세는 Down, Storytelling? Storydoing?의 내용으로 즐거움과 감동을 연수생들과 나누었다.

/정해은 기자

## 전주시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만성정신질환자 '해밀숲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정상근)가 만성 정신질환자 회원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응훈련을 돕고 나섰다.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3일 만성정신질환자들에게 숲 체험을 통한 재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북생명의 숲과 연계한 '해밀숲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숲 체험 프로그램은 숲 전문해설가와 만성정신질환자들이 함께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며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어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폭을 넓히고, 재활의 의지를 북돋우는 재충전의 발판을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해밀'은 비가 온 뒤 맑게 개인 하늘 이라는 우리말을 의미하며, 올해 해밀숲 프로그램은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총 2차례 진행됐다.

한 프로그램 참여자는 "해밀숲 프로그램을 통해 색다른 관점으로 숲을 살피고 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하며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정상근)는 △지역사회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사업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 예방사업 및 교육·홍보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 △복지서비스 연계 등 차별화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살 및 정신질환, 정신건강 등에 대한 상담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3-273-6995~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민근기자